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3, Vol. 32, No. 3, 649-665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

권 용 철 유 성 은†
경찰청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PTSD와 관련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는 해리와 불안민감성을, 정서적 특성으로는 감정표현불능증을 살펴보았고, 이차외상 경험이 빈번한 경찰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인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대구, 경북에 소속된 경찰관 383명을 대상으로 경찰관 직무 사건 목록,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불안민감성 지표, 해리 경험 척도, 대인관계 반응 지수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외상사건 경험빈도,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의 네 가지 요인 모두가 PTSD 증상의 심각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상사건 빈도,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수준과 PTSD 증상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감의 경우 네 가지 하위요인들이 PTSD 증상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관점취하기와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공감적 전이를 측정하는 상상하기와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개인적 고통은 PTSD 증상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지적 공감수준은 낮을수록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수준은 높을수록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이 외상경험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경찰관들의 PTSD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TSD 고위험군인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

---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성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Tel : 043-261-3612 / Fax : 043-269-2188 / E-mail : syou@chungbuk.ac.kr

www.kci.go.kr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외상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인의 50-90%, 알제리인의 92%가 평생 한 번 이상 외상사건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Norris & Slone, 2007) 국내 도시지역에서의 외상사건 노출률은 78.8%로 높게 나타났다(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평생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8-12% (Norris & Slone, 2007), 국내 도시지역의 경우 4.7%로 나타났다(은헌정 등, 2001). 국내 외상사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자연재해 피해자의 36%(이인숙 등, 200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의 41-48%(김승태 등, 1997), 교통사고 희생자의 27.7%(이선미, 김정희, 2002)가 PTSD 증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외상사건의 경험이 PTSD 증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시사되었다.

PTSD 증상은 외상사건 경험빈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Clair, 2006). 여기에서 외상사건의 경험이란 폭넓은 의미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APA, 1994). 경찰관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들에 비해 외상사건 노출이 빈번한 특수 직업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TSD 고위험군에 속한다. 미국 경찰관의 PTSD 유병률은 약 12-35%로 이는 일반인 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이다(Clair, 2006). 국내 경찰관의 경우 12.7-38.8% 정도가 PTSD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자혜, 2012; 신성원, 2007; 이옥정, 2010; 이희선, 2012; 황인희,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PTSD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의 PTSD와 관련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이전의 트라우마 경험, 가족의 정신과적 장애 여부, 외상 이전의 심리적 적응수준, 외상사건 당시 지각된 생명의 위협 정도, 외상사건 당시의 정서반응, 외상사건 당시의 해리반응과 외상사건 이후의 사회적 지지의 일곱 가지 요인이 유의하게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 외상사건 당시의 주관적 고통의 정도, 작업환경 스트레스, 해리증상, 문제해결 및 대처방식(Marmar et al., 2006), 감정표현불능증(McCaslin et al., 2006), 정신과적 가족력과 물질남용(Inslicht et al., 2010)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경찰관들은 직업적 특성상 외상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 외에도 외상사건에 대한 청취 기회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차 외상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Alden, Regambal, & Laposa, 2008). 일반적으로 이차 외상 스트레스는 친구나 가족 등이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Elwood, Mott, Lohr, & Galovski, 2011). 하지만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의 외상을 간접경험 하는 것 이외에 외상생존자와 일해야 하는 서비스 직업군에서 타인의 외상 경험을 공감적인 태도로 반복적으로 청취하게 되면 이차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소진'이라고도 한다(Figley, 1995, 2002). 직업군 내에서의 이차외상이나 소진과

www.kci.go.kr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소방관이나 경찰관과 같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살펴보거나 외상사건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하는 사건들과 직무 스트레스, 소진(burnout)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김종길, 2012; 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데, 일부 연구가 경찰관의 외상경험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또는 대처양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김자혜, 2012; 이옥정, 지영환, 2010). 예상과는 달리,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경찰관들이 더 많은 PTSD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양식도 외상 경험과 PTSD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혜, 2012; 이옥정, 지영환, 2010).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국내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경찰관은 PTSD 고위험군이지만 일반적인 PTSD 환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과 기능 수준이 높고 이차 외상경험의 빈도도 높다는 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PTSD 증상과 관련된 변인들이 PTSD 증상을 보이는 일반인 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상동한 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크게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PTSD의 인지적, 정서적 위험요인들이 국내 경찰관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PTSD와 관련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 불안민감성(Asmundson & Stapleton, 2008; McNally, 2002)과 해리(Lensvelt-Mulders et al., 2008)를 정서적 특성으로 감정표현불능증(McCaslin et al., 2006; Yehuda et al., 1997)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차외상 경험이 높은 경찰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공감의 관계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개념으로, 관찰된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된다(Davis, 1980, 1983).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실제적 또는 추론된 정서 상태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Nietlisbach, Maercker, Rössler, & Haker, 2010).

Ozer, Best, Lipsey와 Weiss(2003)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상사건 노출 후 PTSD 증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은 외상 당시의 해리증상이었다. 해리는 정신의 주인인 나로부터 정신이 잠깐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본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의식 경험이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Bernstein & Putnam, 1986).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사건 당시 또는 직후에 해리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해리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이기도 하고 외상으로 인한 무기력감, 공포 등의 강력한 정서적 상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Olff, Langeland, & Gersons, 2005). 그러나 결국 이러한 해리 반응은 PTSD 및 다른 정신

www.kci.go.kr

병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nsvelt-Mulders et al., 2008). PTSD의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들은 외상 당시의 해리증상이 PTSD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일관적으로 보여준다(Breh & Seidler, 2007; Lensvelt-Mulders et al., 2008; Ozer et al., 2003).

해리와 함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인지적 요인으로 불안민감성이 있다(Asmundson, Coons, Taylor, & Katz, 2002; Asmundson & Stapleton, 2008). 외상 당시의 공포감, 무기력, 전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도 PTSD 증상 발병의 중요 요인이다(Ozer et al., 2003). 특히, 공포스러운 외상사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 및 불안 반응은 PTSD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Asmundson & Stapleton, 2008; Fikretoglu et al., 2007), 불안에 대한 공포 또는 공포에 대한 공포 등으로 표현되는 불안민감성이 PTSD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Asmundson et al., 2002). 또한, 불안민감성의 감소가 PTSD 증상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Asmundson & Stapleton, 2008).

감정표현불능증은 개인이 경험한 정서를 명명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Sifneos, 1973) 이는 참전용사(Hyer, Woods, Summers, Boudewyns, & Harriso, 1990), 집단학살 생존자(Yehuda et al., 1997), 강간 희생자(Zeitlin, McNally, & Cassiday, 1993) 등의 PTSD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Frewen, Dozois, Neufeld와 Lanius(2008)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일반인 PTSD 집단보다 전투경험이 있는 남성 PTSD 집단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PTSD와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는 외상경험의 횟수와는 연관이 없었지만 외상의 심각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 윤간을 당한 희생자가 다른 강간 희생자보다 감정표현불능증을 더 많이 보였으며(Zeitlin et al., 1993), 큰 전투경험(Bandura, 2003) 등의 심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은 PTSD 증상 중 철수, 정서적 둔감화와 특히 연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McCaslin et al., 2006).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의 하나로 공감을 살펴보았다. 경찰관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목격 또는 청취 등의 간접 외상경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Alden et al., 2008), 공감 능력에 따라 이들이 직무상 경험하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개인적 고통수준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효과적인 도움행동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관의 외상경험에 대한 공감반응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감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이지만 공감능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황에 따라 조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Eisenberg & Eggum, 2009). 또한, 정확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잉반응하거나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적인 도움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Goubert, Craig, & Buysse, 2009).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되는데, 공감연구자들은 정서적 공감을 다시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과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으로 분류하였다(Davis, 1980, 1983; Goubert et al., 2009). Davis(1980)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 수준은 높지만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www.kci.go.kr

수준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Decety와 Lamm (2009)는 자신과 타인의 구분에 혼동이 있을 때 개인적 고통이 경험된다고 하였다.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공감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은 인지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고통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Davis, 1980, 1983) Nietlisbach 등(2010)의 연구에서는 PTSD 환자군과 일반인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비교하였는데, 결과 PTSD 환자군이 일반인에 비해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을 높게 보인 반면, 인지적 공감과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 능력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 PTSD 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국내 경찰관의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차 외상 경험이 많은 특수 직업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과 경찰관의 PTSD 증상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가 외상사건 유형을 직접 및 간접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DSM-Ⅳ 진단기준에서 외상사건의 유형을 직접경험, 목격, 청취(직면)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점을 적용하여(Fikretoglu et al., 2007) 국내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따른 경험빈도와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의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보고할 것이다. 둘째, 불안민감성, 해리, 감정표현불능증은 PTSD 증상 수준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능력인 관점취하기와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인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 수준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개인적 고통은 PTSD 증상 수준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대구, 경북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99부를 회수(회수율 80%)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3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자 경찰관 332명, 여자 경찰관 51명으로 평균연령은 38.2세(*SD*=8.39)였으며 연령의 범위는 22세부터 58세까지 다양하였다.

측정도구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사건 경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옥정(2010)과 신성원(2007)이 사용한 경찰관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의 23개 문항을 수정,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본 목록은 Thomas-Riddle(1999)이 사용한 목록으로 신성원(2007)이 원래의 33개 항목을 번안하면서 한국적 실정에 맞게 직접적 외상경험 10문항, 간접적 외상경험 13문항

www.kci.go.kr

의 총 23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옥정(2010)은 신성원(2007)의 23개 문항 중 '총격현장 목격' 문항을 제외하고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격'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당한 사람 목격' 문항과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격' 문항이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성폭행 당한 어린이, 여자 목격'으로 통합하였고 한국 경찰 특성상 많이 경험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을 추가하여 직접경험 10문항, 목격 1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PTSD 진단기준에 있어서 외상사건의 경험이 직접경험, 목격, 직면(청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Fikretoglu et al., 2007) '동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경험' 등 외상사건 청취 문항 7개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를 박유숙(2002)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DS 3장에 제시된 PTSD 증상을 측정하는 17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PTSD 증상의 빈도가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되는지를 4점 척도(0-3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DS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척도 .92였고,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재경험 .78, 회피 .84, 과각성 .84이었다(Foa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사용한 PD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93이었고,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재경험 .87, 회피 .84, 과각성 .88으로 나타났다.

불안민감성 지표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dex, ASI; Reiss, Peterson, Gursky, & McNally, 1986)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표(K-ASI)는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1995)이 번안하여 표준화 하였으며, 원호택 등(1995)의 연구에서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 반분신뢰도는 .9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민감성 지표(K-AS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해리 경험 척도

해리경험척도(Dissociation Experience Scale, DES; Bernstein & Putnam, 1986)는 해리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8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제민 등(1995)이 번안,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시각 유추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0-100%까지를 스펙트럼 상에 기록하게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황성훈(2010)이 사용한 11점 척도(0%는 0점, 50%는 5점, 100%는 10점)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8로 높게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 Taylor, Bagby, & Parker, 1992)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등(1992)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운선, 임효덕, 이양

www.kci.go.kr

현, 김상헌(2003)이 국내 타당화한 TAS-20K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는 정서확인 곤란, 정서표현 곤란, 외부 지향적 사고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이었고(Taylor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S-20K(2003)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서확인 곤란요인 .88, 정서표현 곤란요인 .59, 외부지향적 사고요인 .13으로 나타났다. 외부 지향적 사고요인의 경우 신뢰도 지수가 낮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인관계 반응 지수

공감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고선영(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RI는 4개의 하위척도인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이다(Davis, 1983). 상상하기는 공감의 구성요소 중 공감적 전이의 정도를 측정하며,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을,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을 측정한다(Davis, 1983). 각 하위척도별로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5점 척도(0점=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4점=나를 잘 나타낸다)로 측정한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78였다(Davis, 1983). 본 연구에서 IRI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관점 취하기 .63, 상상하기 .62, 공감적 관심 .49, 개인적 고통은 .62로 나타났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직업적 특성상 남녀의 분포가 고르지 않았는데 전체 참여자의 86.7%가 남자였고 여자 경찰관이 전체의 13.3%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277명(72.3%), 미혼 104명(27.2%), 이혼 1명(0.3%)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99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120명(31.3%), 대학재학 43명(11.2%), 대학원졸 이상 1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근무경력은 평균 12.30년(SD=8.60)으로 근무경력의 범위는 1년부터 33년까지 다양하였다. 현재 근무부서는 수사 및 형사 108명(28.2%), 경비(기동대 포함) 91명 (23.8%), 생활안전(지구대 포함) 71명(18.5%), 과학수사 54명(14.1%), 경찰특공대 27명(7.0%), 정보 19명(5.0%), 교통 10명(2.6%), 경무 3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경험 빈도

본 연구대상자 중 외상사건을 한 번 이상 직접 경험한 비율은 87.5%, 목격은 96.1%, 청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 통계치

		n/M	*%/SD*
성	남자	332	86.7
	여자	51	13.3
연령		38.2	8.4
결혼상태	기혼	277	72.3
	미혼	104	27.2
	이혼	1	0.3
교육수준	고졸	120	31.3
	대재	43	11.2
	대졸	199	52.0
	대학원 이상	19	5.0
경찰 근무경력		12.3	8.6
현재 근무부서	수사형사	108	28.2
	경비	91	23.8
	생활안전	71	18.5
	과학수사	54	14.1
	경찰특공대	27	7.0
	정보	19	5.0
	교통	10	2.6
	경무	3	0.8
현 계급	순경	89	23.2
	경장	79	20.6
	경사	137	35.8
	경위	69	18.0
	경감	6	1.6
	일반직	2	0.5

취는 94.0%로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한 번 이상 외상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들의 외상사건 경험 빈도는 평균 13.89건으로 직접경험 평균 3.33건, 목격 5.80건, 청취 4.76건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외상사건 경험 빈도 중 가장 높은 것은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 목격'으로 339명(88.5%)이 경험한

www.kci.go.kr

표 2. 외상사건 유형에 따른 경험빈도

	외상사건 유형	경험빈도 *n* (%)
직접경험	본인이 위법한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	260(67.9)
	본인이 타인에게 강한 물리력 행사(총기 제외)	192(50.1)
	본인이 근무 중 고속의 차량 추격전 경험	185(48.3)
	본인이 위험한 영장 집행 또는 체포 활동 경험	182(47.5)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눔	155(40.5)
	본인이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눔	67(17.5)
	본인이 근무 중 사고 등으로 심각한 부상 경험	67(17.5)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경험	65(17.0)
	본인 또는 타인의 운전으로 근무 중 차량사고 경험	51(13.3)
	본인이 근무 중 흉기에 의한 심각한 부상 경험	51(13.3)
목격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 목격	339(88.5)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체, 사고사) 목격	315(82.2)
	근무 중 인재(화재, 교통사고 등) 현장 대응	271(70.8)
	근무 중 사고 또는 흉기로 인한 부상자 목격	254(66.3)
	근무 중 성폭행 당한 어린이, 여자 목격	209(54.6)
	근무 중 학대 및 방임된 어린이, 장애인 목격	204(53.3)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 목격	191(49.9)
	근무 중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 현장 대응	184(48.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심각한 부상 현장 목격	103(26.9)
	근무 중 납치당한 사람 목격	80(20.9)
	근무 중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자살 현장 목격	26(6.8)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 현장 목격	33(8.6)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자살 현장 목격	13(3.4)
청취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 청취	310(80.9)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 청취	307(80.2)
	동료 경찰관의 근무로 인한 심각한 부상 사실 청취	305(79.6)
	동료 경찰관의 근무로 인한 사망 사실 청취	290(75.7)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287(74.9)
	동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203(53.0)
	동료 경찰관 또는 그 가족의 위협, 협박 사실 청취	120(31.3)

www.kci.go.kr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다음으로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체, 사고사) 목격'이 315명(82.2%),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 청취'가 310명(80.9%)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한 외상사건 중에서는 '본인이 위법한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이 260명(67.9%)으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건이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TSD 증상은 외상사건 경험빈도(r=.26, p<.01), 해리(r=.43, p<.01), 불안민감성(r=.40, p<.01), 감정표현불능증(r=.4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PTSD 증상과 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점취하기(r=-.15, p<.01), 공감적 관심(r=-.11,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상상하기(r=.12, p<.05), 개인적 고통(r=.33,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 불능증, 불안민감성, 해리, 공감과 PTSD 증상의 관계

PTSD 증상에 대한 감정표현 불능증, 불안민감성, 해리, 공감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TSD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회귀 1단계에서 외상경험빈도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외상경험빈도 통제 후에도 감정표현불능증(β=.16, t=2.71, p<.01), 해리(β=.24, t=4.86, p<.001), 불안민감성(β=.15, t=2.64, p<.001)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 372)=23.09, p<.001. 이 모델은 R^2=.33으로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PTSD 증상과 주요 예측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M	*SD*	1	2	3	4	5	6	7	8	9	10
1. PTSD 증상	6.67	7.65	-									
2. 외상사건 빈도	13.89	5.88	.26**	-								
3. 감정표현불능증	46.03	8.92	.44**	.05	-							
4. 정서확인곤란	12.81	5.00	.49**	.07	.89**	-						
5. 정서표현곤란	12.13	3.17	.33**	.04	.83**	.71**	-					
6. 불안민감성	18.66	11.66	.40**	.15**	.51**	.58**	.45**	-				
7. 해리	29.46	35.22	.43**	.08	.49**	.55**	.38**	.37**	-			
8. 관점 취하기	23.51	3.61	-.15**	.05	-.29**	-.19**	-.18**	-.07	-.22**	-		
9. 상상하기	20.03	3.93	.12*	.02	.17**	.25**	.21**	.35**	.13**	.15**	-	
10. 공감적 관심	23.95	3.16	-.11*	.07	-.24**	-.17**	-.15**	.06	-.16**	.51**	.26**	-
11. 개인적 고통	18.15	3.59	.33**	-.03	.52**	.53**	.48**	.56**	.30**	-.15**	.44**	.07

*p<.05. **p<.01.

www.kci.go.kr

표 4. PTSD 증상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β	t	R^2	ΔR^2	F
1단계			.07	.07	27.42***
외상경험빈도	.26	5.24***			
2단계			.33	.32	23.05***
감정표현불능증	.16	2.71**			
해리	.24	4.86***			
불안민감성	.15	2.64**			
관점취하기	.01	0.19			
상상하기	-.03	-0.57			
공감적 관심	-.07	-1.25			
개인적 고통	.12	1.95			

*p<.05. **p<.01.

논 의

본 연구는 직업적 특성상 외상사건 노출이 많은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과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경찰관의 PTSD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을수록, 해리와 불안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공감의 경우 네 가지 하위요인들이 PTSD 증상과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냈다.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PTSD 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지적 공감수준(관점 취하기)은 낮을수록 자기지향적 정서적 공감수준(개인적 고통)은 높을수록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공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외상경험 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경찰관의 PTSD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사건 경험이 많은 경찰관들의 해리 경험, 불안민감성, 감정표현불능증이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Ozer 등(2003)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외상경험 당시의 인지적, 정서적 경험이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해리는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예측변인이었다. DSM-IV(APA, 1994)에서는 재경험, 회피, 각성의 세 가지 증상을 PTSD의 주요 증상으로 제시하였지만 최근 출시된 DSM-5(APA, 2013)에서는 해리 등으로 인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공포, 화,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

www.kci.go.kr

험하거나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 등을 포함하는 '외상사건 경험과 관련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를 진단 기준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리는 PTSD의 위험요인이 아닌 필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PTSD의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감정표현불능증과 같은 정서적 둔감화나 해리와 같은 인지적 이인화 현상은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회피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2003; Marmar, Weiss, Metzler, & Delucchi, 1996; McCaslin et al., 2006; Olff et al., 2005; Yehuda et al., 1997; Zeitlin et al., 1993). 한편, 불안민감성은 '불안과 관련된 감각에 대한 공포'(McNally, 1985)로 충격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민감화가 '공포에 대한 공포'라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불안민감성도 회피적 대처반응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이라는 것이다(Asmundson & Stapleton, 2008; Fikretoglu et al., 2007).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충격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회피반응이 PTSD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공감은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PTSD 증상과 더 이상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공감은 직접외상 경험보다는 간접외상 또는 이차외상 경험과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Fikretoglu et al., 2007),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경찰관의 경우 전체의 87.5%가 직접외상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목격 또는 청취 경험을 한 경우가 각각 96.1%와 94.0%로 대부분의 경찰관이 직접, 간접 외상 경험 모두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공감과 PTSD 증상과의 관계에서 간접외상경험의 역할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지향적 정서 공감은 외상경험 이후의 부적응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었지만, 인지적 공감 능력과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 능력은 PTSD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능력은 도움이 되지만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전이시키는 자기 지향적 공감 능력은 PTSD 증상의 발현에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경찰관과 같이 직접적인 외상 빈도가 높은 직업군에서보다는 심리치료사나 외상 상담자와 같이 이차 외상 경험이 높은 직업군에서 공감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 모두가 상당수의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의 외상사건 경험빈도가 평균 13.89건이고 직접 경험한 경우의 평균 빈도도 3.33건으로 높다는 점과 더불어 외상사건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는 이들에 대한 직업적 보호와 예방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찰관의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예측변인들이 PTSD 증상수준을 예측하는 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PTSD 진단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PTSD로 진단된 경찰관 집단을 상대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www.kci.go.kr

연구로서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 등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PTSD 증상의 발현의 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의 직접경험과 목격뿐 아니라 청취의 경우에도 PTSD 증상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을 수정 및 확대하여 청취항목 일곱 문항을 새롭게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나 예비연구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국내 경찰관들의 외상사건 경험목록에 대한 척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들이 일반적인 PTSD 환자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회피가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선영 (2004). 시설수용소년범의 공감능력 차이: 범행위험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태, 김병로, 홍경수, 정유숙, 유범희, 김도관 (1997). 삼풍사고 생존자들에서의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빈도, 예측인자, 증상 변화에 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6(3), 475-287.

김자혜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길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5), 31-54.

박유숙 (2002).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를 중재변인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제민, 최병무, 김명정, 한홍무, 유승윤, 김서환, 주영희 (1995). 한국어판 해리경험척도의 표준화 연구 (I). 정신병리학, 4(1), 105-125.

신성원 (2007).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 (1995). 한국판 공황장애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95-110.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40(4), 581-591.

이선미, 김정희 (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47-564.

이인숙, 하양숙, 김기정, 김정희, 권용희, 박진경, 이나윤 (2003). 일개 지역사회 재해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3(6), 829-838.

www.kci.go.kr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정, 지영환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2(4), 173-203.

이희선 (2012).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1), 57-70.

정운선, 임효덕, 이양현, 김상헌 (2003). TAS-20의 한국판 3종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비교. 정신신체의학, 11(1), 77-88.

황성훈 (2010). 해리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 구조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21-837.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den, L., Regambal, M., & Laposa, J. M. (2008). The effects of direct versus witnessed threat on emergency department healthcare workers: Implications for PTSD Criterion 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1337-134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uthor.

Asmundson, G. J. G., Coons, M. J., Taylor, S., & Katz, J. (2002). PTSD and the experience of pain: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shared vulnerability and mutual maintenance model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7*, 930-937.

Asmundson, G. J. G., & Stapleton, J. A. (2008). Association between dimensions of anxiety sensitivity and PTSD symptom clusters in active-duty police officer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7*, 66-75.

Bernstein, E. M., & Putnam, F. W. (1986).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dissociation sca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 727-735.

Bandura, A. S. (2003).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similarities between emotional numbing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lexithym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 349-360.

Breh, D. C., & Seidler, G. H. (2007). Is peritraumtic dissociation a risk factor for PTSD.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8*, 53-69.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PA.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Decety, J., & Lamm, C. (2009). Empathy versus personal distress: Recent evidence from social

www.kci.go.kr

neuroscience.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199-213). Cambridge: MIT Press.

Eisenberg, N., & Eggum, N. D. (2009). Empathic responding: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71-83). Cambridge: MIT Press.

Elwood, L. S., Mott, J., Lohr, J. M., & Galovski, T. E. (2011). Secondary trauma symptoms in clinicians: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ruct, specificity, and implications for trauma-focuse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25-36.

Figley, C. R. (Ed.) (1995).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New York: Brunner/ Mazel.

Figley, C. R. (Ed.) (2002). *Treating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Routledge.

Fikretoglu, D., Brunet, A., Best, S., Metzler, T., Delucchi, K., Weiss, D., ... Matmar, C. (2007). Peritraumatic fear, helplessness and horror and peritraumatic dissociation: Do physical and cognitive symptoms of panic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39-47.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445-451.

Frewen, P. A., Dozois, D. J. A., Neufeld, R. W. J., & Lanius, R. A. (2008). Meta-anaylsis of alexithymia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 243-246.

Goubert, L., Craig, K. D., & Buysse, A. (2009). Perceiving others in pain: Experimental and clinical evidence on the role of empathy.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153-165). Cambridge, MA: MIT Press.

Hyer, L., Woods, M. G., Summers, M. N., Boudewyns, P., & Harrison, W. R. (1990). Alexithymia among Vietnam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1*, 243-247.

Inslicht, S., McCaslin, S. E., Metzler, T. Henn-Haase, C., Hart, S., Maguen, S., ... Marmar, C. (2010). Family psychiatric history, peritraumatic reactivity,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prospective study of poli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 22-31.

Lensvelt-Mulders, G., van der Hart, O., van Ochten, J. M., van Son, M. J. M., Steele, K., & Breeman, L. (2008). Relations among peritraumatic dissoci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138-1151.

Marmar, C., Weiss, D., Metzler, T., & Delucchi, K. (1996).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service personnel related to peritraumatic dissociation during critical incident exposur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94-102.

Marmar, C., McCaslin, S., Metzler, T., Best, S., Weiss, D., Fagan, J., ... Neylan, T. (2006). Predictors post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 1-18.

www.kci.go.kr

McCaslin, S. E., Metzler, T., Best, S. R., Lieberman, A., Weiss, D. S., Fagan, J., & Marmar, C. R. (2006). Alexithymia and PTSD symptoms in urban police office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finding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 361-373.

McNally, R. J. (2002). Anxiety sensitivity and panic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52,* 938-946.

Nietlisbach, G., Maercker, A., Rössler, W., & Haker, H. (2010). Are empathic ability impaired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Reports, 106*, 832-844.

Norris, F. H., & Slone, L. B. (2007). The epidemiology of trauma and PTSD. In M. J. Friedman, T. M. Keane, & P. A.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78-98). New York: Guilford Press.

Olff, M., Langeland, W., & Gersons, B. (2005). The psychobiology of PTSD: Coping with trauma. *Psychoneuroendocrinology, 30*, 974-982.

Ozer, E., Best, S., Lipsey, T., & Weiss, D.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 52-73.

Reiss, S., Peterson, R. A., Gursky, D. M., & McNally, R. J. (1986). Anxiety sensitivity, anxiety frequency, and the prediction of fearful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4*, 1-8.

Sifneos, P. E. (1973). The prevalence of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22*, 255-262.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A. (1992). The revised Toronto alexithymia scale: Some reliability, validity, and normative data.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7*, 34-41.

Thomas-Riddle,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Yehuda, R., Steiner, A., Kahana, B., Binder-Brynes, K., Southwick, S. M., Zemelman, S., & Giller, E. L. (1997). Alexithymia in holocaust survivors with and without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93-100.

Zeitlin, S, B., McNally, R. J., & Cassiday, K. L. (1993). Alexithymia in victims of sexual assault: An effect of repeated traumatiz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661-663.

원고접수일 : 2013. 01.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7. 11.
게재결정일 : 2013. 07. 24.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3, Vol. 32, No. 3, 649-665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Symptoms among Police Officers

Yong-Chul Kwon
National Police Agency

Sungeun Yo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police officers in Korea. Police officers are frequently exposed to traumatic events at work, leading to higher risk for PTSD. Three hundred eighty three police officer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completed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PTSD symptoms,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and empathy. Results showed that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and empath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As predicted, alexithymia, dissociation, and anxiety sensitiv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TSD symptoms. Among subfactors of empathic abilities,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ic concer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whereas fantasy and personal distr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relative contributions of predictors to PTSD symptoms after controlling for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Results showed that alexithymia, dissociation, and anxiety sensitivity remained significant, while empathic abilities did not. Based on findings,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PTSD,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empathy

www.kci.go.kr